



화승그룹,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에 신규 신발공장 투자
2026년까지 1만 2000명 채용, 인근 지역 주민 우선 선발
루트피 주지사 “허가 간소화와 안전 보장” 약속

MONTHLY **KOFA**

코파의



Ruko Pinangsia Block B No.25, Tangerang, Jl. Boulevard Jend. Sudirman, RT.001/RW.009,
Panunggan Bar., Kec. Cibodas, Kota Tangerang, Banten 15138, Indonesia
Tel. 0856 9113 2325,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Vol. **129**
2025/06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이재명 대통령 당선 “국민 통합 책임 잊지 않겠다” “첫째는 내란 극복, 둘째는 경제 회복 제게 맡긴 사명 한치 어긋남 없이 이행 “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여러분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다” 고 했다.

이 당선인은 21대 대선 당선이 확실시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당선인은 “여러분이 작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풍찬노숙하면서 간절히 바랐던 것, 그중 하나, 이 나라가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라는 사실,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권력은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밝은 미래만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다” 고 했다.

그는 “이제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들을 파면하고 이 나라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투표로써, 주권 행사로써 증명해주셨다” 고 했다.

이 당선인은 “여러분이 제게 맡긴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 이 나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중받고 증오, 혐오가 아니라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켜내겠다” 고 했다.

이 당선인은 “그리고 두 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 개표방송 행사에서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째, 여러분이 맡기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 내일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다” 고 했다.

그는 “세 번째,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지난 시기에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 국민은 의심해야 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그 책무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대규모 참사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떠나게 했다” 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1의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안전한 나라를 꼭 만들도록 하겠다” 고 했다.

이 당선인은 “네 번째로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 확고한 국방력으로 대북 억제력을 확실하게 행사하되,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북 간에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존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공존, 공동 번영하는 길을 찾아가겠다” 며 “한반도 정세를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화해서 코리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안보 때문에 우

리 국민의 민생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이 당선인은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료들이다. 남녀로, 지역으로, 노소로, 장애인·비장애인, 정규직·비정규직, 기업가와 노동자, 이렇게 틈만 생기면 편을 갈라서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결하게 하지 않겠다” 며 “혐오와 대결을 넘어서서 존중하고 공존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 우리가 꿈꾸었던 완벽한 대동세상은 못 될지라도 이웃이 경계해야 될 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진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꼭 만들겠다” 고 했다. 그는 “정치가 이해관계 때문에 다투더라도, 정치가 편을 가를지라도 국민은 편을 가를 필요가 없다” 며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대신 책임지는 일꾼들이다. 일꾼들이 편을 갈라 싸우는 건 피할 수 없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을 갈라 증오하고 혐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고 했다.

이 당선인은 “통합된 나라,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 이라며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그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역강부약의 대동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 고 했다.

그는 “우리가 겪는 잠시 어려움은 위대한 국민이, 우리가 힘을 합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희망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이웃과 손잡고 함께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며 “지금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하자. 잠시 다투었을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민국민이다. 함께 가자” 고 했다.

조선일보

HKI
PT. HANJIN
KONSTRUKSI INDONESIA

HJ
PT. 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www.hanjinpower.com

Jl. Raya Serang - Jakarta KM. 80, Kel. Kaserangan, Kec. Ciruas -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화승그룹,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에 신규 신발공장 투자 2026년까지 1만 2000명 채용, 인근 지역 주민 우선 선발 루트피 주지사 “허가 간소화와 안전 보장” 약속

한국 제조업체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현지 일자리 창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한국 신발 제조기업 화승이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파티(Pati) 지역에 신발공장을 신설하고 2026년까지 1만 20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대규모 채용은 화승그룹 계열사 PT 화승인도네시아(HWI)가 추진하는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현지 언론인아닐라자텅(inilahjateng)과 수아라메르데카(suaramerdeka)가 지난 14일(현지시각) 각각 보도했다.

PT HWI는 이미 중부 자바 지역에서 약 3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만 3900명이 제파라에, 나머지는 파티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이 회사는 신규 채용 시 제파라, 쿠두스(Kudus), 파티 등 공장 인근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리설(Lee Seol) PT HWI 이사는 지난 14일 중부 자바 주청에서 아흐마드 루트피(Ahmad Luthfi) 주지사와의 면담에서 “지역 주민 우선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

◇ 3조 루피아 이상 투자... 지역 사회 복지와 CSR 확대
보도에 따르면 PT HWI는 중부 자바 제파라와 파티 두 지역에 각각 1조 100억 루피아(DIR 858억 원), 2조 8000억 루피아(약 238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은 제파라 6931억 루피아(약 589억 원), 파티 1조 9000억 루피아(약 1615억 원)으로



▲주화승 인도네시아(HWI) 이설 이사가 2025년 5월 1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흐마드 루트피 자바 주지사와 만나고 있다. 사진=화승

집계됐다.

회사 측은 투자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공헌(CSR) 활동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설 이사는 이날 만남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의지도 강조했다

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동식 전문의료차량(Spelling) 지원, 화장실 개선,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루트피 주지사는 화승의 투자가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영향을 줄 것이라며 환영했다고 한다. 그는 “주정부는 허가 간소화, 인력 준비, 투자 안전 보장 등 모든 지

원을 할 것”이라며 “중부 자바가 투자자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루트피 주지사는 “화승이 계속 성장하면서 사회 복지도 신경 쓰는 지속 가능한 투자 본보기가 되기 바란다”며 공장 주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PT 화승인도네시아는 스포츠 신발공장을 운영하며, 2026년까지 1만 2000명 추가 고용과 수조 루피아 규모 투자를 통해 중부 자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화승의 대규모 투자와 채용 확대가 중부 자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지 고용 창출과 복지 증진,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가 투자 유치의 긍정적 사례로 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글로벌이코노믹

화승인더스트리, 인도네시아 계열사 채무보증 확대...382억원 규모 계열사 보증잔액 총 5749억원



스포츠 패션 ODM 전문기업 화승인더스트리가 인도네시아 계열사 화승인도네시아(PT. Hwa Seung Indonesia) 추가 지원에 나섰다.

화승인더스트리는 15일 공시를 통해 화승인도네시아에 382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기존 보증금액의 증액과 기간 연장에

해당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채무보증금액은 미화 2700만달러로, 상기 금액은 15일 기준 환율(1달러당 1415.80원)을 적용해 산정했다. 보증 기간은 2025

년 5월 19일부터 2026년 5월 19일까지다.

이번 간을 포함한 화승인더스트리의 계열사 채무보증 총 잔액은 5749억원이다. 이 중 화승인도네시아 대상 보증잔액은 2782억원에 달한다.

화승인도네시아는 2024년 기준 매출액 5360억원, 당기순이익 13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63%, 153% 증가한 수치다. 자산총계는 4895억원, 부채총계는 3612억원, 자본총계는 1283억원으로 집계됐다. 화승인더스트리는 글로벌 사업 확장과 계열사 지원을 위한 재무 전략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성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PT ALJUM GREEN NUSA

정직하고 품질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겠습니다!

— LS-AG Cable Indonesia 공식 대리점 —



LV 케이블/Building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



Overhead 케이블



Busduct

HEAD OFFICE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 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0811 8126 7788 (한국인 상담)
0811 8430 561 (한국인 상담)

LS-AG Cable Indonesia
www.lscns.com
www.lsag.co.id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v 20-21, Wanajaya,
Telukjambe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021 3973 3988

OFFICIAL DISTRIBUTOR | 공식 대리점
PT ALJUM GREEN NUSA

인니 무역부, 484개 품목 수입 규제 완화 추진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9일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했다.

무역부는 기존의 수입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포괄적 수입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역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수입 조건과 쿼터를 부과하는 무역부 규정 제36/2023호와 제8/2024호를 폐지하고, 포괄적인 새 수입 규정으로 대체할 예정이지만, 아직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수입 규제 완화 대상은 총 484개의 품목으로, 이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첫 번째 그룹은 수입이 전면 자유화되는 품목들로 임산물, 식품용기, 보조비료, 기타 연료, 플라스틱 원자재 등 5개 분야가 포함된다. 두 번째 그룹은 기존 여러 서류 대신 조사(감정) 보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품목들이다.

특히 의류 및 액세서리 완제품 322개 HS 코드는 무역부의 수입 승인(PI)을 위한 데이터 검증 절차가 없어지며, 산업부의 기술 승인(Pertek)만 획득하면 된다.

반면, 쌀, 석유, 철강 등 3개

분야의 2,495개 HS 코드는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밀, 대두, 면화, 석유 및 가스 시추 장비 역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협상 타결을 위한 전략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섬유협회(API)

는 이번 규제 완화가 섬유 수입을 촉진해 미국과의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말까지 8,29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본격화하기 위해 철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식품용기 수입을 무관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 가능한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타라통신에 따르면, 루훗 뽀자이판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무상급식에 사용되는 식판을 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조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 대중교통 타라, 안 타면 승진도 없다



▲뽀라모노 아농 자카르타 주지사는 평소보다 15~20% 증가한 140만 명을 기록했다.

뽀라모노 주지사는 “이 정책이 단지 행정명령이 아닌, 공직자들의 일상 속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중교통은 자카르타의 미래이며, 교통 체증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카르타 주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의 대중교통 신뢰 회복 및 이용률 제고 등 일거양득 효과를 기대다하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정부가 매주 수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게 승진 제한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뽀라모노 아농 자카르타 주지사는 지난 8일 자카르타 공무원의 대중교통 이용 규정을 발표하면서, “내가 주지사로서 있는 동안, 이 정책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은 최소 5년간 승진을 기대하지 말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는 2025년 제6호 자카르타 주지사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4월 30일부터 발효되어 자카르타 주정부 산하 모든 공무원과 직원들은 매주 수요일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정책 시행 첫날인 4월 30일, 공무원의 이행률은 96%에 달했으며, 특히 트란스자카르타(TransJakarta)의 이용객 수

인니 이민당국 단속...외국인 27명 강제 추방될 듯

인도네시아 이민 당국은 서부자바주 브카시 지역에서 실시한 단속을 통해 총 27명의 외국인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0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에 체포된 외국인들은 체류기간 초과, 거주허가의 부적절한 사용, 허위 보증인 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나이지리아, 카메룬, 파키스탄, 시리아, 알제리, 중국 출신으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며 추방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이민 당국은 밝혔다.

서부자바주 이민국 감시·집행 책임자인 이만 뜨구 아디

안토는 “현장 조사 중 몇몇 외국인은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전하며, “이 중 14명은 단기체류허가(KITAS)를, 1명은 영주체류허가(kitap)를 갖고 있었으나 조사 결과 이 15명의 보증인 혹은 보증기관은 허위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한, 10명의 외국인은 자신들의 체류 허가 조건을 위반한 활동을 벌이다 적발됐고, 나이지리아 국적의 2명은 체류기간을 초과해 인도네시아 이민법상 명백한 행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만은 당국이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조사를 진행



할 것이며, 위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될 경우 인도네시아 이민법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이들이 이

민법 제78조 3항에 따른 행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방 및 출입국 블랙리스트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인도네시아]

www.f1logix.id

글로벌 물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LEADING LOGISTIC PROVIDER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oor.
JL. MT. Haryono Kav.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 : +62-859-3945-2622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현지 생산도 고려” ... 中 공략하는 운동화 ‘신흥 강자’ 온

운동화 업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스위스 러닝화 브랜드 ‘온(On)’이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경기 침체로 소비 여력이 줄어든 중국 소비자들이 명품 대신 스포츠 브랜드로 눈을 돌리는 틈을 타고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18일(현지 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온이 급성장하는 중국의 헬스 및 피트니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며 아시아의 거대 경제시장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온은 지난 2010년 은퇴한 트라이애슬론 선수 올리비에 베른하르트가 부상 없이 뛸 수 있는 러닝화를 고민하면서 시작한 브랜드다. 신발 밑창에 고무 호스를 잘라 덧댄 독특한 디자인 덕분에 러너들 사이에서 ‘구름 위를 달리는 기분’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성장했다. 2021년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후, 현재 시가총액은 약 200억 달러(약 28조원)에 이른다.

FT에 따르면 할리우드 배우

온,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中 공략
1분기 아시아서 약 2600억원 벌어
中 신젠지·청두 등에 대형 매장 有
“침체 국면 접어든 명품과 대조적”



▲스위스 운동화 브랜드 ‘온(On)’의 신발들 / 로이터=연합뉴스

젠데이아와 명품 브랜드 로에베 등과의 협업을 통해 미국에서 급성장한 온은 이제 중국 본토와 일본 등 아시아를 향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마틴 호프만 온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머지않아 중국은 우리에게 상위 3대 시장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2~3년 내에 중국 매출 비중을 글로벌 순매출의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온은 중국 내 스포츠 및 레저웨어 열풍을 공략하며 매장수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톨루레몬, 살로몬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매장이 들어선 상하이의 고급 쇼핑 거리 신젠디(新天地)에 매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달에는 청두에 중국 내 최대 규모의 매장을 새롭게 열었다.

아시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온의 올해 1분기 아시아 지역 순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0% 증

로벌 순매출은 환율 영향을 제외하고 40% 증가한 7억 2660만 스위스프랑(약 1조 2149억원)이었다.

온의 성장은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 명품 브랜드들이 부진을 겪고 있는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미국 컨설팅 회사 베인앤드컴퍼니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명품 시장 매출은 최대 20% 감소했다.

FT는 “중국 내 고급 스포츠 브랜드의 성장은 루이비통 모엠헤네시(LVMH)나 리치몬트 등 글로벌 명품 그룹들이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과 는 상반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호프만 CEO는 “소비자들이 명품에서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온’은 그 중심에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 내수 시장을 위한 현지 생산도 ‘온’의 로드맵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에서 스포츠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은 온이 넘어야 할 산이다.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업계의 ‘전통 강자’ 뿐만 아니라, 안타스포츠, 리닝, 엑스텔 등 중국 토종 브랜드들도 최근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호프만 역시 “아직 우리는 중국 시장에서 초기 단계에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KOFA 회원사 산불 성금 내역

5월 30일까지 집계현황

No	회원사	대표자	코파 내 직함	성금 금액
1	PT. Pratama Abadi Industri	서영률	고문님	Rp 100,000,000
2	PT. TKG Taekwang Indonesia	황의성	부회장님	Rp 100,000,000
3	PT. KMK Global Sports	송창근	명예 회장님	Rp 50,000,000
4	PT. Sinar Masanda Industri	이종윤	회장님	Rp 30,000,000
5	KOFA 재인도네시아한국신발협의회	KOFA 회원사 일동		Rp 30,000,000
6	PT. Sung Lim Chemical	오세명	고문님	Rp 20,000,000
7	PT. Hanshin Air Compressors	유성열	총무님	Rp 20,000,000
8	PT. Hanyoung Indonesia	박길용	총장님	Rp 10,000,000
9	PT. Asia Chemical	윤범수	부회장님	Rp 10,000,000
10	PT. Assems Indo	박성호	부회장님	Rp 10,000,000
11	PT. Sung Dong Il Plastik	최성미	총무님	Rp 5,000,000
12	PT. Sumber Makmur Sukses	윤종찬	회원님	Rp 3,000,000
총 합계				Rp 388,000,000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카다록
도서출판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카렌다
행택
기타

021-3002-9087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PT. YOU YEOUNG EMBROIDERY

최고수준의 품질과 뛰어난 광택!

100%의 폴리에스터 자수사로 원사 구매부터 연사, 염색, 와인딩, 품질검사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형 EMB인도네시아 공장에서는 현재 약 1,500여 가지 색상 약 25만권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와 수십 년 동안 거래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 도

신발, 가방, 모자, 텐트, 장갑, 의류, 침대, 소파, 시트, 특수편사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제품명

100%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자수사 50D / 2합 (5,000M) 75D / 2합 (5,000M) 120D / 2합 (5,000M) 150D / 2합 (3,000M)	100%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재생사: Recycled) 75D / 2합 (5,000M) 120D / 2합 (5,000M) 150D / 2합 (3,000M)	100%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밑실 75D / 2합 (144M) 스판 밑실 60S / 2합 (5,000M~50,000M) 주문생산 : 인견사 120D / 2합
---	--	---

PT. YOU YEOUNG EMBROIDERY
Kawasan Industrial Millenium Jalan Millenium 12 Blok F2 No. 7 Kel. Peusar Kec. Panongan, Kab. Tangerang – Banten 15710
Tel. +62 21-599-2386 Mobile. +62 822-4980-4125 Email. ufoemb@youyeoung.com

[칼럼] 인니 대량 실업 현실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절실

글: 신성철 발행인

인도네시아 제조업이 최근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대규모 해고, 잇따른 공장 이전, 수출 실적 악화라는 삼중고가 덮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더해, 인도네시아 경제의 취약한 내부 구조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이중 충격이 겹쳐 발생한 결과다.

지난 4월 2일,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수입품에 최대 32%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를 예고하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9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시장은 이미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다. 고용 불안은 현실로 나타났고, 그 파장은 제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오는 7월까지 최대 15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섬유, 전자, 서비스업까지... 산업 전반에 드리운 구조조정의 그림자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의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불과 올해 1~2월 두 달 동안 6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해고 인원과 맞먹는 수치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해고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섬유 기업인 PT 스리텍스와 PT 카르아미트라 부디센토사, 신발 제조업체 PT 아디스디멘션 풋웨어, 일본계 전자업체 PT 산켄 인도네시아 등이 이미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거나 공장 폐쇄를 결정했으며, 요식업 등 서비스업도 경영악화에 따른 디지털화로 빠르게 전환하



면서 고용을 줄이고 있다. 기업들은 한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수출 주문은 눈에 띄게 줄었고, 물류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정부 규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고 토로한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예측 불가능한 세금 정책,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한 간접 비용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값싼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인도네시아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점차 도태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1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공장 설립과 투자 유치를 통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공식 부문과 비 공식 부문을 모두 합산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제는 제조업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대부분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비공식 경제 영역으로 유입된다는 점이다. 노점, 오토바이 택시, 온라인 판매,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은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낮은 소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2024년 기준, 인도네시아 전체 노동자의 57.95%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고용 수치 이상의 심각한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곧 국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명백한 지표인 것이다.

경제개발재정연구소(INDEF)의 안드리 누그로호 박사는 “비공식 부문은 일시적인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지대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의 위기는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저하, 세수 감

소, 사회 불평등 심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미국발 관세는 촉매제, 근본 원인은 취약한 경제 구조 이번 인도네시아 제조업 위기의 직접적인 촉매제는 미국의 고율 관세이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인도네시아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 있다. 낮은 부가가치 산업 구조, 과도한 규제, 불투명한 세제 시스템, 그리고 팬데믹 이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소비심리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다. 여기에 더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까지 겹치면서 인도네시아의 산업 생태계는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이미 해고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을 요구했으며, 프라보워 대통령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순히 조직 하나를 만드

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예측 가능한 세제 개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법적 확실성과 인센티브 제공이다.

신타 캄다니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 회장은 정부에 다섯 가지 핵심 제안을 내놓았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법적 확실성 보장 △현실에 부합하는 최저임금 제도 운영 △행정 절차 간소화 △외국인 및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안들은 일회성 미봉책이 아닌, 인도네시아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이다.

향후 90일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를 발판 삼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그러나 관세 유예는 단기적인 시간 벌이에 불과하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오롯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몫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일자리 창출’ 슬로건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건실한 공장과 기업을 지켜내는 것이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비공식 부문으로 내몰리지 않고, 다시 ‘정상적인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용 정책의 핵심이다. 수출과 고용이라는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멈춰 설 위기에 처한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의 현명한 선택은 곧 수많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다. 실업은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닌, 개개인의 삶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위기를 의미한다. [끝]

엘리베이터(화물용) 선택은 오케이가 최선입니다.

오케이엘리베이터

세계 어디든 함께합니다.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들과 쌓은
신뢰와 기술



오케이 엘리베이터(주)

OK VINA ELEVATOR CO.,LTD.
OK ELEVATOR CO.,LTD.
PT. OKE ELEVATOR INDONESIA

INDONESIA | LEE YOON HWAN
T. +62 21-8991-9999 F. +62 21-3873-5031
M. +62 852-1778-9098
E. okelevatorind@gmail.com

KOREA | 이 윤 환
M. +82 10-5313-8820 E. okelevator@naver.com

PT. OKE ELEVATOR INDONESIA
Ruko plaza menteng blok c no16 lippo cikarang bekasi 17550

모든걸 저희 OK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기술 OK 신뢰 OK 안전 OK



삼성물산



미중 관세 인하, 인도네시아의 협상 지위 강화 기회로



▲북부 자카르타 탄중 뿌리옥 자카르타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 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완화가 보호주의적인 미국 행정부와 협상에서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서로의 수출품에 대한 세 자릿수 수입 관세를 두 자리 수로 낮추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145%의 관세를 30%로 낮추기로 합의했고, 미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보복했던 중국은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관세율은 90일 간 적용되는데 이 기간동안 양국이 추가협상을 통해 근본적인 무역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재무부 데니 수르잔포로 대변인은 13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가 무역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 외교와 협상의 효과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데니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 간의 최근 상황을 글로벌 무

역과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긴장 완화”로 보고 있다. 긴장 완화로 공급망이 개선되고 글로벌 무역이 “더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상호 연결된” 방향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협상 측면에서 볼 때,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모델링을 활용하여 다자 또는 양자 포럼에서 협상 입지를 강화하고, 보다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을 추진하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글로벌 역학 관계 속에서 국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조정부 장관실의 라텐 빠르데데는 “관세 전쟁의 주요 원인이 두 대국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미중 관세 인하가 전 세계적으로 상호관세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국과 미국의 예비 합의가 인도네시아가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할 때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라텐은 트럼프의 움직임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다며, 정부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상치 못한 조치’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Apindo)의 실파 까다니 회장은 지난 13일, 관세 상황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보편적인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다며,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상황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그 동안에는 국내 소비 감소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국내 소비를 회복하는 것이 과제라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경제 활동의 절반 이상을 꾸준히 차지하는 가계 지출은 최근 몇 년 동안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뒤쳐져 있다.

쁘르마따 은행의 파이살 라흐만 이코노미스트는 14일, 미국과 중국의 최근 합의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제품에 부과

하는 관세는 관세 전쟁이 시작되기 전보다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며, 인도네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주요 둔화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주로 수출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7개 산업에서 나타날 것이며 내수 시장으로 판매를 전환할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파이살은 말했다.

그에 따르면 취약 산업은 (1) 섬유 및 의류, (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3) 금속 제품, 컴퓨터, 전자, 광학 및 전기 장비, (4) 목재, 목재 제품, 대나무, 등나무 및 유사한 식물 제품, (5) 기계 및 장비, (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7) 가죽, 가

죽 제품 및 신발이다.

쁘르마따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조수아 빠르데데는 14일, 중국과 미국 정부가 각자의 입장을 완화하기 시작했고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대해 더 화해의 분위기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트럼프가 거부할 수 없는 양보 패키지를 제안했고, 이는 협상 중에 이루어진 제안에 중점을 두었음을 의미한다고 추측했다.

조수아는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미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 땅에 대한 투자를 원한다는 그의 견해를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의 블루암모니아 프로젝트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포함한 인도네시아의 제안은 “트럼프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니 본원 통화량 15% 증가... 정부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세 진입”

한동안 침체일로를 겪던 인도네시아 경제가 본원통화량이 전년 대비 15%나 증가하는 등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경제는 올 초까지만해도 정부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성장률과 물가하락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19일 현지 매체 콤포스닷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기구(LPS) 푸르바야 유디 사데 위원장은 지난 16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5 투자 포럼’에서 “올해 1~2월에 만 해도 5%대였던 본원통화 증가율이 이제 15%까지 올라



▲인도네시아 국영은행 BNI은행 /사진=인도네시아 국가은행(BNI) 제공

섰다”며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도네시아 국내 은행의 건전성도 여전히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제3자 자금(DPK)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저축 증가율은 오히려 약 7%에 달해 금융시장 안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푸르바야 LPS 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이 저축을 늘리고 있다는 것은 금융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올해 8월쯤에는 경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주가지수(IHSG)는 기존 최저점인 6000대에서 최대 6배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이낸셜 뉴스

톱슨목금형(톱슨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잠실에 韓 최초 러닝 콘셉트 ‘나이키 라이즈’ 뜬다

잠실 롯데월드몰에 특화매장 3개 공간서 신제품·전문가 상주 ‘나이키 런클럽’ 수업도 운영

롯데백화점이 국내 최초로 ‘러닝’을 콘셉트로 한 초대형 나이키 매장을 잠실점에 선보인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러닝 인기가 계속되자 각종 콘텐츠의 특화 매장으로 고객을 붙잡겠다는 구상이다. 14일 롯데백화점은 15일부터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나이키 라이즈’ 매장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러닝 익스피리언스(Running Experience·러닝 경험)’을 콘셉트로 차용한 320평대 공간이다. 기존 나이키 매장이 100평대에 그쳤지만 이를 3배가량 키

우고, 러닝에 특화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접목한 통합형 매장으로 만들었다. ‘베이퍼 플라이4 프로토’ 등 최상위 글로벌 한정판 상품을 두루 갖췄다. 대형 디지털 스크린, 메탈 소재 인테리어 요소를 활용해 미래 지향적인 매장을 완성했다. 매장 내부는 각기 다른 개성의 3가지 차별화 공간으로 나뉘었다. ‘이니셔티브존’에서는 매 시즌 업데이트되는 러닝웨어 신제품을 선보인다. 10미터에 달하는 파노라마형 초대형 슈즈 월을 통해 각종 프리미

엄 제품을 공개한다. ‘커뮤니티 존’에서는 러닝화 및 러닝웨어 등 집을 보관할 수 있는 락커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크인 데스크를 통해 전문가의 러닝 솔루션도 제공한다. ‘퍼포먼스 존’에서는 고성능 러닝화를 직접 착용하고 뛰어볼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는 연회원 1000명 규모의 국내 최대 러닝클럽 ‘나이키 런클럽 롯데월드타워(NRC-Lotte World Tower)’도 운영을 시작한다. 잠실 롯데타운에서부터 올림픽 공원 일대를 코스로 정해 매주 1회 러닝 클래스를 연다. 전문 코치가 매주 20~30명을 교육하고, 러닝 메이트로 나서 실력 향상을 돕는다. 런클럽은 실제 러닝 대회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계절별 맞춤 트레이닝 과정도 운영한다. 5~6월에는 초보자를 위한 러닝 기초, 7월에는 중급자를 위한 인터벌 트레이닝, 9월은 마라톤 시즌 대비 장거리 달리기, 11~12월은 몸 관리에 중점을 둔 시즌 마무리 러닝

등이다. 롯데백화점은 15~18일 사이 매장 전 품목에 걸쳐 2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15만원 이상 구매하면 투명 ‘러닝백’을 증정하고, 러닝 제품 포함 20만원 이상 구매하면 프리미엄 ‘러너스 패키지’를 제공한다. 매일경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지하 1층 ‘나이키 라이즈’ 매장 <사진=롯데백화점>



PT. ACE ENERGY SERVICE
Electical - Mechanical - IUJPTL (Solar Plant) - O&M

인도네시아 태양광 선두주자!

인도네시아에 청정에너지를 담습니다!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PLN보다 저렴한 태양광 사용전력 비용만 납부하세요.



설치비 X, PLN전기로 보다 저렴한 태양광 전기로 납부



운영비 X, ACE와 글로벌 투자사가 20-25년 보증 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선도기업 이미지 제고

ACE ENERGY SERVICE는 On-Grid / Off-Grid 태양광 Total PV 시스템을 제공
미래 태양광에너지 발전을 선도하는 EPC/O&M 회사입니다.

연락처 : Mr. Steve Youn : 0812 9730 5553 / steveyoun.indo@gmail.com
Mr. Song Kwang Ho : 0812 8168 3844 / dragonhoya@gmail.com

- ACE와 함께 2025년 귀사의 친환경 선도기업 이미지를 만드십시오.
- 태양광 사업 제안에서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T. Hwa Seung Indonesia_Jepara_4.1MWp>

<PT. Parkland World 3_Jepara_2.4MWp>



<PT. Handal Sukses Karya_Jepara_1.1MWp>

<세아 상역 인도네시아_2MWp>

※ PT. Shinsung Grand Indonesia, PT. Kanindo makmur jaya, PT. Pung Kook Indonesia One 외 다수



혁신적 탄소배출량 및 전기료 절감 실현

베트남 2공장의 현지 경험으로 동남아 지역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양한 제품군으로 설계부터 유지보수까지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주요생산품목

급유식 공기압축기
(Oil-Type)
·스크류 공기압축기
- 7.5 ~ 330kW
(10 ~ 450HP)

·인버터형
스크류 공기압축기
- 7.5 ~ 330kW
(10 ~ 450HP)

·2단압축
스크류 공기압축기
- 37 ~ 250kW
(50 ~ 350HP)

무급유식 공기압축기
(Oil-free)
·오일프리 스크류 공기압축기
- 2.2 ~ 40kW
(3 ~ 60HP)

·인버터형 오일프리
스크류 공기압축기
- 37kW ~ 450kW
(50 ~ 600HP)

·인버터형 오일프리
저압 공기압축기
- Blower (0.4 ~ 1.5bar)
- Low Pressure Compressor
(1.5 ~ 3.5bar)

진공펌프 (Vacuum Pump)
·스크류 진공펌프

압축공기 제습장치
·냉동식 에어 드라이어
·흡착식 에어 드라이어
·라인쿨러
·에어필터

PT. COMPKOREA TEHNIK INDAH

Ruko Karawaci Office Park, Pinang Utara, Panunggangan Barat Cibodas Tangerang, Ruko H-25
김태봉 법인장 : +62-811-932-689 E-mail : kimtb160@gmail.com / ptcompkorea@gmail.com

Lippo Cikarang지점
홍창선 이사 : 082113702540

한국본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약수터길 127-14 (가재리 396-6)
M. +82-10-2504-6443 E-mail : jr@compkorea.com

CJ BIO인도네시아 최대 그린팩토리 사업장 인니 환경부 장관 공식 방문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 하니프 파이솔 누로픽(왼쪽에서 다섯번째)이 CJ 바이오 빠수루 안 사업장을 공식 방문했다(사진=CJ BIO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 하니프 파이솔 누로픽(Dr. Hanif Faisol Nurofiq)은 지난 7일, 인도네시아 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공장 중 하나로 평가받는 CJ 바이오(CJ BIO) 동부자바 빠수루안 사업장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 환경부 차관과 주요 국장들도 동행해 CJ의 친환경 생산 공정과 기술력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CJ 바이오는 1988년부터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지역에서 사료 및 식품 첨가제용 아미노산을 생산해 왔으며, 현재까지 바이오 기반 제품을 통해 그린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장관 일행은 생산시설 시찰, RTC 연구소 견학, 환경 보존을 기념한 식수 행사 등에 참여했다.

하니프 장관은 “CJ바이오의 기술력과 공장 운영 방식, 특히 환경규제 준수 노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인도네시아 기업들과의 지식 공유를 통해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성CJ인도네시아 지역본부장은 “CJ 바이오를 포함한 모든 CJ 계열사들은 인도네시아 환경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며, 환경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환경부 장관 방문은 CJ의 ‘그린 바이오’ 비전과 지속가능 경영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뜻깊은 계기였다”고 말했다.

[CJ BIO 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

합변의 법률상식

인도네시아 정부 감사 및 규제 조사 대응 전략

PT PMA(외국인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다양한 규제기관으로부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사업 활동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재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1. 인도네시아 정부 감사의 개요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사는 여러 부처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사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조정위원회(BKPM): 외국인 투자 실적 및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 세무청(DJP):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및 납부 관련 감사
- 노동부(Kemnaker): 고용 규정 준수, 외국인 근로자 비자 관련 점검
- 환경부(KLHK): 환경영향평가(AMDAL) 및 배출

기준 준수 점검 이외에도 지자체 감사, 산업별 감독 기관의 현장 점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사전 감사 대응 체계 구축

감사에 대한 대비는 단기적 대응보다 중장기적인 체계 수립이 효과적입니다.

- ① 문서 정리 및 보관 시스템
 - 투자 허가서류, 세무신고서, 노동계약서, 환경보고서 등을 디지털 및 인쇄본으로 체계적으로 보관
 - BKPM 보고 자료는 연 2회 이상 검토하여 허위 보고 방지
- ② 내부 감사팀 또는 담당자 지정
 - 감사 대응을 총괄하는 법무 또는 재무 담당자를 명확히 지정
 - 외부 회계법인 및 로펌과의 사전 협약 체결
- ③ 감사 대응 매뉴얼 개발
 - 기관별 질문 유형, 응답 방식, 문서 제출 포맷 등을 포함한 매뉴얼 구축
 - 주요 임직원 대상 시나리오 기반 교육 실시

3. 불시 감사에 대한 즉각 대응 방안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현장 조사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침착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① 응대 태도와 역할 분담
 - 감사관에게 협조적이고 전문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
 - 담당자 외 응대 자제 및 비공식 발언 금지
- ② 문서 제공 및 입장 표명
 - 요청 문서는 기록으로 남기고, 입장은 문서화하여 제출
 - 모호한 질의에 대해서는 즉답보다 검토 후 회신을 원칙으로
- ③ 기록화 및 사후 점검
 - 모든 감사 과정은 기록하고, 회의록을 작성
 - 감사 종료 후 조치 사항 이행 여부를 체크리스트화

4. 내부 법적 리스크 점검과 개선 감사를 계기로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① 정기적 계약 검토
 - 협력사 및 직원과 체결된 주요 계약서의 법적 유효성 검토
 - 중재 조항, 분쟁 해결 조항 삽입 여부 확인
- ② 회계 투명성 확보
 - 모든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장부 정리, 내부 감사 연 1회 이상 시행
 - 세무 자문을 통한 신고 내역 검토
- ③ 인허가 및 보고 체계 점검
 - OSS 시스템 기반 인허가 갱신 여부, 환경보고 주기 체크
 - 투자자 보고 의무 이행 여부 재점검

맺음말
인도네시아의 규제 환경은 예측 가능성이 낮고, 감사를 통해 갑작스럽게 리스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은 이러한 상황을 위



변호사 함상옥

기보다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PT PMA로서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감사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법무법인 HAMINDO/BAP LAW FIRM, ATMOS LAW FIRM 파트너 변호사
- 전문 분야: 기업 법무, 파산 관제, 건설 관련 법무, 광산 관련 법무, 형사 법무
- 한국 부경 대학교 석사, 인도네시아 UNMA UNIV. S2(석사)
- BAP 법무법인
- ATMOS LAW FIRM 파트너 변호사
- 인도네시아 변호사
- MEDIATOR (법원중재인 / MMI 민사법원)
- TAX LAWYER (세무변호사/ PEN-GADILAN PAJAK 세무법원)
- KURATOR (파산관재인/ KEMENKUMHAM 법무부)
- MINING LAWYER (광물변호사/ PERKHAPPI BNSP)
- 다국적 기업 M&A 법률 자문 (PT, Nestle Indonesia)
- 인도네시아 한인 업체 법률 자문
- 인도네시아 봉제협회 (KOGA) / 인도네시아 땅그랑 한인회 자문 변호사

Perkins



YANMAR

MITSUBISHI

FAW

DEUTZ

mtu

ISUZU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판 매
임 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 형 5kVA ~ 220kVA

중 형 250kVA ~ 700kVA

대 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 문의

박 성 웅 Hp : 0812 9512 8990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9 No. 82,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bakchan@daum.net

이노비즈협회, 인도네시아 제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스마트팩토리 전문가 양성 2주간 초청연수현지 공정 혁신 본격화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앞줄 오른쪽 네번째)이 인도네시아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공적개발원조(ODA) 초청 연수 수료식 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제공

이노비즈협회는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디지털 전환(DX)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공무원 및 중소기업 기술인력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 초청연수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인도네시아 산업전환을 위한 스마트팩토리화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이다. 지난 12월부터 이날까지 2주간 운영됐다.

연수 대상은 인도네시아 협동조합부 공무원, 비누스대학교 관계자, 스마트팩토리 도입기업의 기술인력 등 총 20명이다.

협회는 연수기간 동안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의 스마트팩토리 교육 및 실습 △국내 스마트공장 우수사례 현장견학 △인공지능(AI) 및 혁신기술 전시 참관 △액션플랜 발표 등 실무 중심의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정부 ODA 프로젝트다. 지난해 12월에는 비누스대학교 내 ‘한-인도네시아 스마트팩토리 교육센터’를 개소하고 현지 기업의 공정개선과 기술교육을 지원해오고 있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수료식에서 “올해 3년차를 맞은 인

도네시아 ODA 사업은 지금까지 전문인력 60여명을 양성하고, 6개 현지 기업의 공정개선 및 장비 구축을 지원해왔다”며 “이

번 연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의 스마트팩토리 역량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도 연수

단과의 차담회에서 “현지 제조현장의 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기대하며, 지난해 개소한 스마트팩토리 교육센터가 실무형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정겨운 우리말

놀다 : 누런 빛이 나도록 조금 타다

예)그의 속에서, 보리죽을 끓일 때에 술 밀구멍에서 죽이 누르라고 나는 지글지글 소리처럼 끓어 오르는 울분의 소리가 나고 있었다.(한승원, <해일>)

놀면하다 : 보기 좋을 만큼 알맞게 누르스름하다.

예)새우튀김이 놀면하게 튀겨져서 맛있어 보인다.

농치다 : 좋은 말로 마음을 풀어 누그러지게 하다.

예)태호는 화난 아내를 농치는 솜씨가 뛰어나다.

늪 : 솟은 쌀 속에 등거가 벗겨지지 않은 채로 섞인 벼 알갱이 (쫄다 : 찢어서 껍질을 벗기고 깨끗하게 하다)



느껍다 : 어떤 느낌이 마음에 북받쳐서 벅차다.

예)나는 그의 마음 씀씀이가 느껴워 가슴이 뭉클해졌다.

느런히 : 죽 벌여서

예)엄마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이 식탁 위에 느런히 차려져 있다.

단국대학교 한문교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
문학박사
중부대 명예교수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표
한국어문화회 회장
저서 : 한국어문화문법의 50여권

다문화 한마음 큰잔치 MEMPERINGATI HARI ANAK2 DAN KELUARGA

함께하는 우리,
더 따뜻한 세상!

우리 가족, 우리 이웃, 함께 웃는 날!

모두가 주인공인 우리 동네 큰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TGL) : 2025년 6월 27일(금) 오전 10시
TGL 27 JUNI, 2025 HARI JUMAT JAM 10:00
장소(Tempat) : Aula Serba Guna
CITRA RAYA SPORT CLUB(Bundaran 3)

문의 : 0813 1850 7850 유두선 총무(CTK)
0816 1733 1396 김어진 사무장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9 4208 7976
(Cab. Kcp Citra Raya)
YAYASAN WARGA KELUARGA INDONESIA

주최 : 재인도네시아 다문화 가정 후원회 (회장 : 최진덕)
주관 : 찌뜨라 땅그랑 코리아(CTK)
후원 : 재외동포청 /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 재인도네시아 땅그랑반튼한인회
KORINDO / PT. SENG DAM JAYA ABADI / PT. PARKLAND WORLD INDONESIA
PT. KODASINDO TATASARANA / PT. KMK GLOBAL SPORT / 무궁화 유통
PT. MITRA CMB INDONESIA / PT. KUKDONG PERDANA INDONESIA
PT. KORIN TECHNOMIC / PT. JOA INDUSTRIES / PT. KORIN COOKWARE
PT. SINAR MASANDA INDUSTRI / 재인니 한국 신발협의회 / 재인니 한국 봉제협회



대한민국 노통연관보일러 No.1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보다 높은 레벨의 퍼포먼스를 실현, 노통보일러의 폭넓은 스테이지
“Higher Levels of Performance”



DMXN-Series

- 고성능 저녹스버너 탑재
- Siemens Control 채용
- 2-Damper 전자식 컨트롤로 Air, Gas의 정밀제어를 통한 최적의 연비실현



NOx 40ppm 이하



98%이상



99%이상



비례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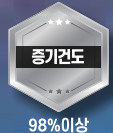


DMI-Series

- 콤팩트형 미니 노통보일러
- 협소한 공간에 최적의 보일러
- 모든 부대장비가 하나의 플랫폼상에 설치, 배선, 배관이 되어있어 현장 운반 설치가 용이



폭 1,960~2,730mm



98%이상



90%이상



스텝제어

산업용 보일러 위력 54년!
(주) 대열보일러
DAEYEO BOILER CO., LTD.
INDONESIA AGENCY

영업 담당 : 이 광 선 이사

Tel. +62-021-598-0222 / +62-0812-100-77732

E-mail. salesyja@gmail.com / sunny@yusungjaya.com

본사-제조공장(서산 소재)



www.dylboiler.co.kr

푸마, 1분기 실적 둔화...경영진 교체 · 공급망 조정 나서 ‘호카 · 아디다스’에 점유율 뺏기고 美관세폭탄까지



▲푸마가 1분기 실적둔화를 발표했다. 사진=푸마

독일 스포츠 브랜드 푸마의 2025년 1분기 이익률이 크게 감소했다. 경쟁사인 아디다스와 호카에 시장점유율을 뺏기는 와중에 미국 관세정책의 타격을 크게 입고 있다는 분석이다. 푸마는 경영진 교체와 공급망 조

정, 실적 개선을 위해 비용 절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푸마의 1분기 매출이 20억 8000만 유로(약 3조 2882억 원)로 작년 1분기 대비 0.1% 증가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인 20억 4000만 유로(약 3조 2249억 원)보다 약간 높은 수치지만, 1분기 순이익은 50만 유로(약 8억 원)에 그치며 전년 동기 8730만 유로(약 1380억 원)에서 크게 감소했다. 영업이익(EBIT)은 63.7% 급감한 5770만 유로(약 912억 원)를 기록했으며, EBIT 마진은 7.6%에서 2.8%로 줄었다. 그룹의 주요 사업 동력인 도매 매출은 미국과 중국의 주요 약세로 인해 3.6% 감소했다.

다만 미국관세의 영향을 배제한 2025년 실적 전망치를 유지한 결과, 실적 발표 후 주가는 8% 상승했다. 그러나 주가는 연초 대비 여전히 43% 하락한 상태다. 푸마는 지난달 일련의 이익 경고 이후 아르네 프로인트가 사임한 후, 현재 이사진이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아디다스의 전 영업 책임자인 아서 홀드가 7월 1일부터 CEO직을 맡게 될 예정이다. 마르쿠스 노이브란트 푸마 최고재무책임자는 최근 관세정책에 대응해 공급망을 조정하기 위해 중국에 생산되는 미국시장용 상품의 양을 10% 줄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에서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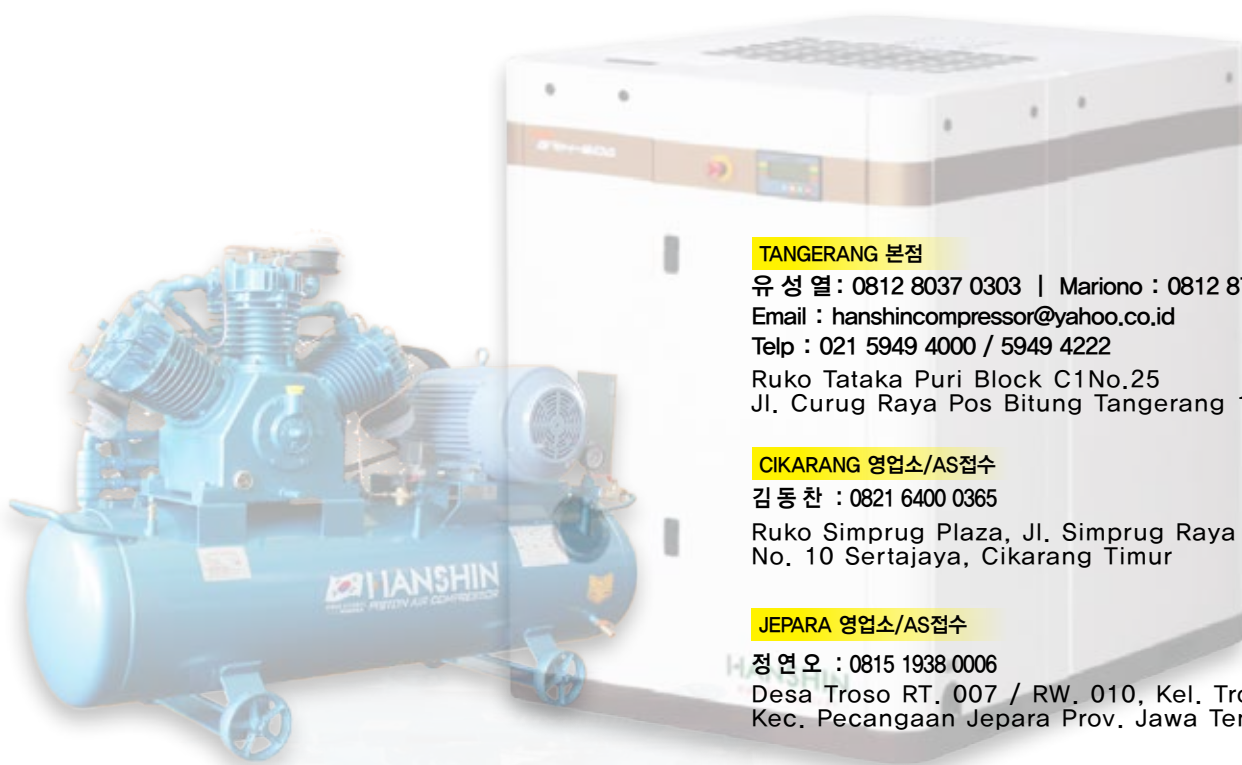
푸마는 전체 제품의 28%를 중국 공장에서 구매하고, 베트남에서 26%, 캄보디아에서 16%를 생산한다. 푸마의 1분기 말 재고는 작년 대비 21% 증가했는데,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미국으로 더 많은 상품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한편 푸마는 지속적인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2분기 말까지 전 세계적 직원 감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HANSHIN

에어 콤프레서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